

‘PBR 1배·시총 12조’… 박현주, 글로벌 전략으로 새 시대 열다

〈미래에셋 회장〉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의 족’은 어디에 꽃혀 있을까.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GSO, 글로벌 전략가)은 국내외 경제가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절묘한 한 수를 뒀다. 특히, 미국·영국·홍콩·싱가포르·인도 등에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가 구심적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자사 프라이빗뱅크(PB)들을 중국으로 출장 보냈다. PB들은 알리바바와 바이디, 로보센스, 킨디 소프트, 유비테크, 샤오펑 등 상장사들을 직접 견학하고 면담했다. 중국 시장의 미래에 관심이 큰 박 회장의 영향력이 리테일 현장까지 뻗친 모양새란 해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PB들을 중국에 보내 현장의 발전을 체감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시가총액은 전세계 8%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국 기업들은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주식투자에서 중국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회장의 눈은 인도로 향한다. 그는 지난 3월 인도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그룹 비전 선포식’을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은 현재 19개국에 진출한 글로벌투자전문그룹으로 6000억달러(약 870조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관리하는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이라며 “신뢰와 혁신, 열정과 고객에 대한 헌신으로 인도법인의 성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 회장의 또 다른 관심은 증시 부스트업이다. 2030년까지 자사주 1억주를 소각할 방침이다. 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스트업과 맞닿아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부를 늘리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박 회장이 올해 행보에서 보여준 성장의 골자는 ‘해외’와 ‘지속적 일드(수익)’로 압축된다.

◆자기자본 12조 ‘금융의 엔비디아’ 미래에셋증권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시가총액 12조. 미래에셋증권의 최근 주가 성적표다. 회사 관계자는 “성공이 아니다. 오랜 어둠을 뚫고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다시 선 것이다. 시장이 미래에셋



“주가 2만원 돌파… 연초 대비 167%급등
글로벌 거점 22곳, 현지화 전략 성과 가시화
해외 이익 비중 33% 글로벌 성장 본격화

2030년까지 자사주 1억주 소각 계획
주주환원 3670억… 환원율 40% 달성
증시 활성화 정책 수혜 등 기대 커져

증권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PBR 1배는 미래에셋증권이 그만큼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기업가치(수익 확대) 노력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PBR이 낮으면 기업 재정이 안정됐다는 뜻이다. 금융사 평가에 PBR이 유용한 이유다. 그렇지만 PBR이 너무 낮으면 자산은 많은데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다. 부동산 자산만 많거나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경우도 해당한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PBR을 높이려면 주가가 오르거나, 자산이 줄어야 한다. 주가가 오르며 PBR이 높아지면 좋지만, 주가 올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과 같은 주주환원책 등을 통해 자산을 줄이는 게 ‘저 PBR’ 해소에 용

이한 방법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규모를 합한 총 주주환원총액을 3670억원으로 확정했다. 총 주주환원율은 약 40%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 이상을 소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주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지속적 일드(수익)’창출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증시 부스트업의 근본 동력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6조526억원, 영업이익 3462억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해외법인 세전이이익이 1196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이익의 약 33%를 차지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린 박 회장의 혜안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커진 자본력이 만든 결과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12조3000억원이다. 10조원대 자본력은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유일하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이 해외법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동력이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1991년 런던법인, 1992년 미국법인, 2007년 홍콩법인을 설립한 이후 주요 글로벌 거점에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 혁신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선두 기업 글로벌X(Global X)를, 2022년 호주 운용사 글로벌X호주(Global X Australia), 2023년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스타스팟, 유럽 ETF 시장조성전문회사 GHCO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인도 현지 증권사 웨어칸 인수를 성공시켰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미국법인은 월가 현지에서도 대외 높은 중소 증권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 미래에셋웨어칸은 5년 내 인도 5위권 증권사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글로벌 사업에 배분하고 있다. 해외 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다.

지속적인 일드 창출을 위해 뛰어난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왕좌의 자리에 올랐다. 별칭인 ‘퇴직연금 공룡’이란 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개인연금을 합친 미래에셋증권의 총 연금자산은 45조8684억원. 고객 중심 철학과 장기적 투자 전략,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투자자를 불러 모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은 24조5162억원이다. 누구도 넘보기 힘든 업계 1위다. 퇴직연금 1분기 적립금 증가액도 약 1조3278억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는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전체 증가액(5조7891억원)의 약 23% 수준이다.

인공지능(AI)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AI 열풍에 걸맞은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AI 혁신’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온 미래에셋그룹은 2024년 미국 내 AI 알고리즘 기반 투자회사인 ‘웰스스팟(Wealthspot)’을 설립했다. IT 강국인 인도에는 GCC(Global Capability Center)를 세워 해외 사업에 필요한 효율적인 IT 및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업은 성장산업” 예측 현실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현실주의자)가 됩시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늘 불가능한 꿈을 품고 삽시다.” (2015년 12월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간담회) 박현주 회장의 일성은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 말과 닮았다. 그의 말처럼 미래에셋증권은 늘 도전했고, 새로움을 찾았다. 그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삼성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금융사가 미국의 메릴린치·골드만삭스·JP모건, 일본의 노무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태까지 공식화돼 있었다. 박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그룹은 국내 자산 규모 20위권에 랭크된 대기업집단으로 이런 편견에 도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성장성이 큰 글로벌, 연금, 해외주식 비즈니스 등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의 리스크 대응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도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고객 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미래에셋증권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S&P는 주요 해외자회사들의 수익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미국 등 선진국 자회사에서 청산 결제 서비스 및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같은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봤다. 인도에서도 작년 현지 증권사 인수에 힘입어 자산관리 및 중개업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2025년 1분기 평균총자산이익률(ROA)은 약 0.8%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0.5% 대비 개선됐다.

주가 전망도 밝다.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목표주가를 1만4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9% 올렸다. 이 증권사 백두산 연구원은 “2025년 지배순이익 추정치를 9422억원에서 1조795억원으로 15% 상향 조정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1423만 국내 주식투자자와 중장기 국가 경쟁력 및 성장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수혜는 기업금융(IB)와 주주환원 경로로 리레이팅 요인”이라고 짚었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 인도법인이 웨어칸 증권 인수 100일을 맞아 “Shaping The Future Together” 주제로 개최한 ‘그룹 비전 선포식’에 박현주 회장이 참석해, 현지 133명 지점장을 포함해 인도 임직원 3800여명을 대표하는 주요 직책자 350여명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